

남원 ‘가을 축제’ 즐길 준비 됐나요?

16~19일 국제드론제전 with로봇·흥부제·국가유산 야행 시, 먹거리·숙박·청소 대책 마련·안전 점검 등 준비 만전

남원시가 ‘3대 가을 축제’를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남원의 지역 3대 가을 축제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과 제33회 흥부제, 2025 남원국가유산 야행이다. 이들 축제는 16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진다. 시는 프로그램 준비 상황 점검은 물론 먹거리·숙박·청소 대책 마련, 자원봉사자 모집, 안전 점검 등 축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이 신성장산업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기획된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드론 실증도시 남원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16~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올해는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5 K-Drone to World Festival’과 연계해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

이한다. 드론레이싱·드론축구·로봇스포츠 대회, 드론·로봇 관련 최신 기술·정책 및 실증 성과 공유 전시관·컨퍼런스, 드론 라이트쇼 등 드론·로봇이 결합 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흥부제는 ‘흥 넘치고 도파민 터지는 대박 흥부제’를 주제로 17~19일까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연·체험 등 총 45개 프로그램과 20여개 플라마켓으로 구성된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참여형 축제로 펼쳐진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낮보다 더 아름다운 남원의 밤 풍경을 제대로 즐길 기회 ‘남원 국가유산야행’은 16~19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월궁에 입사한 달토끼’를 주제로 관람객을 맞는다. 야행은 지역에 집적된 국가유산과 주변 문화콘

텐츠를 하나로 결합,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 남원야행은 명승 광한루원을 무대로 8야(夜) 테마에 따라 전시·공연·체험 등 32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람객들이 ‘인턴 달토끼’가 돼 행사장 곳곳의 미션을 수행하면 특별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야간 조명 경관이 대폭 강화된 만큼 광한루원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남원야행의 대표 프로그램 ‘천등 날리기’는 남원국가유산야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의 봄에 춘향제가 있다면 남원의 가을엔 드론국제제전, 흥부제, 국가유산 야행 등 3대 가을축제가 있다”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전통과 첨단이 조우할 수 있는 다양한 성찬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공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국지도 15호선 입체교차로 3년만에 완공

보건소·노인복지회관 접근성 개선

고창군이 보건소 등 사회복지지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고창읍 국지도 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사업’ 준공식을 지난 2일 열었다. **〈사진〉** 사업은 2022년 7월18일 착공해 3년의 공기를 거쳐 완공됐다. 교차로 설치로 그동안 교통 혼잡과 안전문제가 지적돼 온 구간의 교통흐름이 개선되고 고창군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등 주요 복지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입체교차로 설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뿐만 아니라 고창군



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유서 깊은 고택서 전통 문화 좋을씨고~

고창군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판소리 체험·창극 공연 등 호평

고창군이 ‘2025년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마지막 행사를 창극 ‘웅녀’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명창의 길, 풍류의 길’은 고창군이 (사)동리문화사업회와 같이 판소리 체험, 창극 공연, 플로깅 탐방, XR 체험 등이 어우러져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고창 신재효 고택 일원에서 운영됐다.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한 창극 ‘웅녀’는 신재효 선생이 정리한 고전 ‘변강쇠가’를 웅녀의 시각에서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판소리의 정수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4회 차 공연에는 명절연휴를 맞아 고창을 찾은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은 물론, 심덕섭 고창군수까지 함께 관람하며 흥겨운 무대를 즐겼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올해에 이어 2026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전통과 흥, 흥보가의 울림’이라는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이 또다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도 고창 신재효 고택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전 신재효 선생께서 실제로 거주하시며 창작활동을 펼쳤던 유서 깊은 고택에서 많은 분들과 고창 판소리에 폭 빠져 수 있었던 흥겨운 시간이었다”라며 “내년 고창 흥보설전도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장금이파크서 ‘음식+역사+치유’

산내면 장금마을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차·음식 만들기 등 다채



이학수(오른쪽) 정읍시장이 ‘장금이파크’ 개관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의녀 대장금’을 테마로한 ‘장금이파크’가 산내면 장금리 일원에 개관했다. 이곳은 앞으로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복합문화테마공간으로 운영된다. 장금이파크는 2017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비 38억5500만원, 시비 45억5500만원 등 총 84억1000만원이 투입돼 지난 2022년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지난해부터 장금이스토리로 전시관과 체험시설의 콘텐츠를 구성했다. 산내면 장금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장금설화를 바탕으로 한 장금이파크는 의녀 대장금의 정신을

계승한 전통문화와 음식을 테마로 운영된다. 약선요리·발효음식 등 치유음식 체험과 정읍의 특산물 약재를 활용한 향화차 만들기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장금이파크는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추석·설날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장금이파크는 의녀 대장금의 정신을 담아낸 문화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정읍의 다른 관광 명소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오늘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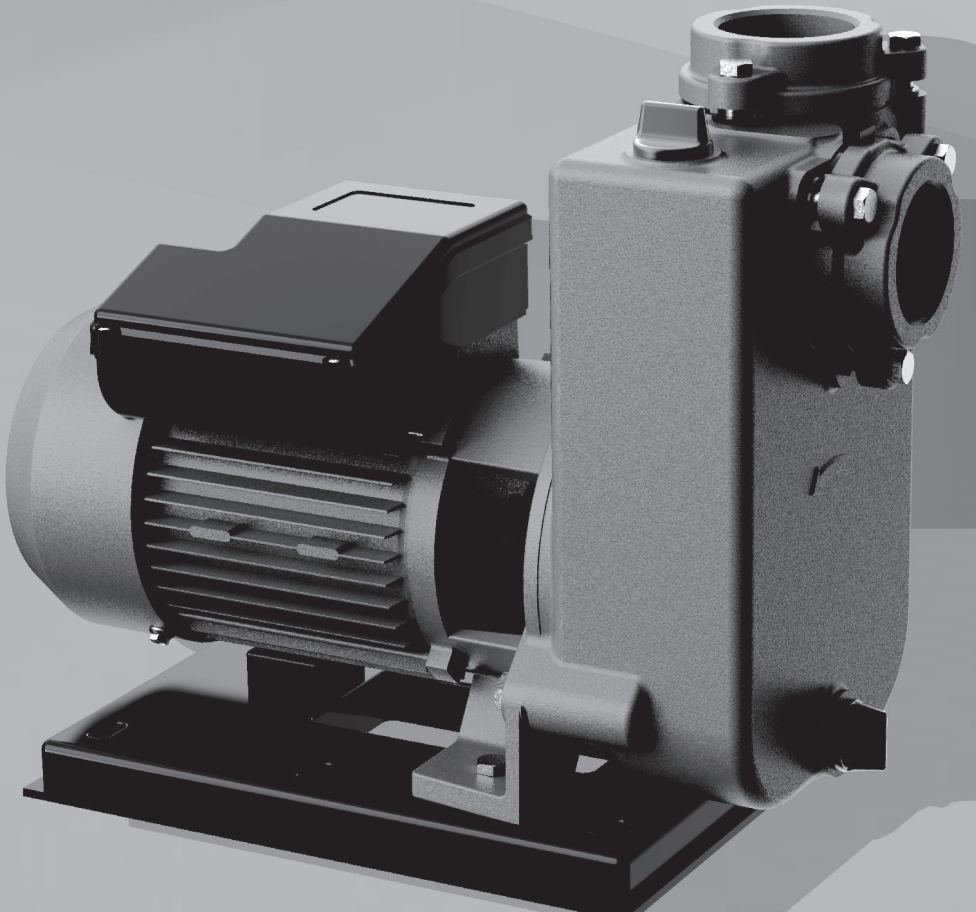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정읍시가 10일부터 연말까지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나선다. 정읍시는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공공비축미 곡 1만1996t을 매입할 예정이라며 올해 매입 물량은 전년도 매입실적과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만1042t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바로미2 등 세 품종이다. 시는 지정된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 해당 농가가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매입 기간은 종류에 따라 나뉜다. 산물벼는 10일~24일, 가루쌀벼는 20일~11월7일, 건조벼는 11월10일~12월31일까지다.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40kg당 4만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되고 최종 정산금은 통계청 기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쌀값이 결정된 후 연말에 지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수매로 한해 동안 고생한 농가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안전한 매입을 위해 농가와 매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지적재조사 국가 예산 34% 증액

남원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국가 예산 9억 4800만원(국비)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액된 규모다. 전국적으로 해당 국가 예산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남원시가 거둔 성과로 평가된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큰 폭의 국가 예산 감소로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 전북도를 수시로 찾아 지역 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설명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또 지역 내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며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예산 축소라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남원시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이 사업이 지적불부합 문제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도로 재포장, 보도 설치, 가로등 증설, 공원 조성 등 여러 분야의 주민 생활 인프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원하는 경계도 조정이 가능한 만큼, 주민 만족도 또한 높아 사업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남원시는 “이번 국가 예산 확보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